

제 4 호

대림 네째 주일

1972. 12. 24

숲 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북한 동포를 기억하는 성탄

범 석 규 신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때가 다쳐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의례히 “고요한 밤”이라는 성가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든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이 잘못된 죄악적인 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위대한 어떤 사람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는 세상 임금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러 탄생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인을 벌하러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고 버림받은 자를 구하고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탄날은 기쁜 날입니다. “만민이 즐거워할 바 큰 기쁨”의 날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윗읍내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세상이 바뀐 날입니다. 세계 역사가 전환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인류 역사는 새로 시작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구세주의 성탄을 기준으로 살아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972년입니다. 곧 그리스도 강생후 1972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기는 자유세계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 진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인류 역사가 새 출발을 한 날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경축하는 우리는 아직도 어둠속에 방황하는 무리를 깨우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유 세계에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권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산 독재자들 까지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기원하며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십자가가 요구되었듯이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에는 우리의 회성이 요구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시는 교형 자매 여러분, 선조들이 백여년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잊지 맙시오. 북한에서 신앙의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 핏줄을 잊지 맙시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마음껏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기원하는 밤으로 만듭시다.

(전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하늘은 위로부터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비처럼 정의를 내리라. 땅을 열리어 구원을 싹트게 하라.

□ **제1독서** (사무엘서 7장)

다위의 나라는 주님 앞에 영원하리라.

□ **찬미송**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입으로 그 진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이룩했노라” 하시며, 주는 진실하심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 **제2독서** (로마서 16: 25-27, 성서 p370)

오랜 세월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알렐루야.

□ **복음** (루가 1: 26-28, 성서 p122)

인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이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성탄하시는 그리스도를 참다운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그리스도안의 모든 가족들이 성탄의 기쁨 안에서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3. 주여, 신의 모든 사람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

4. 공산 치하에서 고난 받는 형제들도 성탄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 **대림 감사송 2**

□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 인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 성탄절 미사 ※

전야 독서(사도 13: 16-17, 22-25, 성서 p296)

복음(마태오 1: 1-25, 성서 p1)

밤 독서(디도 2: 11-14, 성서 p492)

복음(루가 2: 1-14, 성서 p126)

새벽 독서(디도 3: 4-7, 성서 p492)

복음(루가 2: 15-20, 성서 p127)

낮 독서(히브리 1: 1-6, 성서 p496)

복음(요한 1: 1-18 또는 1: 1-5, 9-14, 성서 p202)

※ 이주간의 성경 ※

26(화) 독서(사도행전 6: 8-10, 성서 p227)

복음(마태오 10: 17-22, 성서 p21)

27(수) 독서(요한 1: 1-4, 성서 p202)

복음(요한 20: 2-8, 성서 p258)

28(목) 독서(요한 1서 1: 5-2: 2, 성서 p542)

복음(마태오 2: 13-18, 성서 p3)

29(금) 독서(요한 1서 2: 3-11, 성서 p543)

복음(루가 2: 22-35, 성서 p127)

30(토) 독서(요한 1서 2: 12-17, 성서 p543)

복음(루가 2: 36-40, 성서 p128)



□ 교리교실 □

주(그리스도)의 평화

박진량 신부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평화」란 말 일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꽤 많이 쓰고 있다. 미사중에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편지 서두에 「주의 평화, 매년 정월 초에 「평화의 날」 행사, 「평화를 원하거든 정의를 실천 하라」 등등 또 오늘 성탄 자시미사 복음에도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 14)라는 찬사들의 노래를 들려 주고 있다.

「평화」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단순히 「싸움없는 상태」만을 가리킨 것은 아닌 성 싶다.

구약성경에 평화(Shalom)이란 말은 꽤 풍부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정의(正義)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평화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더욱 심오하고 영신적인 것으로 표현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거나, 병을 낫게 하시고는 「평안히 가시오」(루카 7:50, 8:48)라고 하시면서 평화를 궁극적인 인간 구원에까지 연결 시킨다. 진복판단에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리니」(마테 5:9)하신 말씀은 평화의 깊은 뜻을 당신의 기본 정신(하느님 아들의 특성)에 적용 시키고 있다. 그 평화를 수난전에 당신 제자들에게도 남겨 주고자 하신다.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잡니다. 내 평화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한 14:27)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라고 말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십자가의 승리(즉 부활)로 얻어진 구원의 열매(하느님의 선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유대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요한 인간 완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사들의 노래가 무슨 뜻인지 대강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 양지쪽 □



선 물

선물을 받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주어본 적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렸을 때의 흐뭇한 일들이 마음 밑바닥에서 부터 따스하게 솟아 오르곤 한다. 한 곳에서 30여년을 살아오나 그랬을런지도 모르기는 하다. 명절때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주고 받던 사과 몇알, 두부 두어 모, 콩나물 서너 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살아나는 지 모르겠다. 현대 지금은 어찌 그리도 놀랍게 그런 흔적이 없어지고 말았는지?

때가 때인 만큼 선물들이 많이 오갈 때가 되기도했다. 꼬깃 꼬깃 애써 모아둔 주머니를 털어서 앨범을 사는 여학생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던 흐뭇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대매출, 바겐 세일의 불을 타고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요란스러운 광고들 속에 우리네들의 아름다운 미풍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신성하고 순수해야 할 결혼 선물부터 서로들 기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부끄러운 꼬락서니로 탈바꿈되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소위 뇌물이라는 것의 전신(前身)은 무엇인가?

이때때가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O·헨리(O. Henry)지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기에, 그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시계의 시계스물을 위해서는 그 자랑스럽고 아까운 금발을 잘라야 했던 일. 아내의 그 금발을 위해서는 가보처럼 전해오던 금시계를 팔 수 밖에 없던 눈물겨운 일들. 실질적으로는 쓸모 없게 된 빗이나 시계스물이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고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이런 선물을 주고 받아 본 적이 당신에게도 있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당신이 준비한 선물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국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혼수속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50쌍이나 된다는 토픽 뉴스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천박하고 조잡한 유(類)의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의 하느님께 준비한 선물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준비한 선물은?
당신이 존경하는 그 분에게 준비한 선물은?
(김)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북 자	서 학 동	전 동
교리시간	예비	일(11시) 화. 목(10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직장	화. 목(오후 8시)	화(오후 7시)		수(저녁미사후)		일(오후 8시)
	학생	수. 토(오후 7시)					
	아동	토(오후 3시반)	토(오후 3시)	일(오후 2시반)	일(11시)	일(9시)	일(9시반)
	학생	일(9시)		토(오후 4시)			일(11시)

* 대학의 광장 *

● 잔 디 발 ●

우리의 사명



김 경 수

언제부턴가 무척이나 동경하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뻐 즐기는 성탄절에 주님의 은총이 내려지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로판 단함을 받으리라」(마르 16, 15-16)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모든것을 그리스도 안에 제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무거운 사명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성신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인구중 일부 종교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구는 하느님을 믿지않거나 부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할 사명을 지니고 있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철학자 「푸르게네프」가 말한 세가지 중에 “나만이 살고 남에게는 살 여유를 주지 않는 에고이스트(Egoist)”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대부분이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에만 그치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해서 지나질까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가야할 길을 다시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리고 잡시다.

암흑의 세계에서 발버둥치는 구원의 손길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고 서광이 비치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만이 우리 주를 위하는 길이요, 우리의 포교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안토니오, 서학동 본당 상관공소)

※독자투고합영(200자 3매 내외 혹은 7매, 사진 동봉 요망, 본당 및 본명 기재 요망, 보내실곳→전주 해성 중교교 (전 ㉠3998)

따뜻한 이야기들

<36,500원 운동>

본당 살림을 돕기 위한 실자들의 본분인 교무금을 매일 100원씩 내겠다는 운동이 전동성당에 물결치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아들의 공납금을 제때에 못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매일 만년필이나 라이타를 수선하여 번 돈으로 100원씩의 교무금을 내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박준성(야고버)씨의 이야기다. 박준성씨의 이 뜻이 알려져 호응하고 나선 분들이 있으니 범 창규(베드로)씨, 온재의(요한)씨가 그분들이다.

크리스마스가 되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도 오그려 부치던, 인색한 「스쿠리이지」 이야기 말이다.

36,500원 이야기는 이 추위에 탄성하신 아기 예수님을 따스하게 해드릴 만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전동 천주교회)

<제물은 우리의 정성으로>

미사 성제에 필요한 제물과 촛불을 말없이 봉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3년 동안이나 복자 성당을 밝히는 성조를 매일 500원씩 드려서 봉헌한 유마리아씨의 뜻은 열매를 맺어서, 2년전부터 장발바라씨는 포도주를 봉헌해 왔고, 금년 10월부터 김글라라씨는 제병을 책임지고 있다.

하는가 하면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교우들의 이야기가 순교 복자들의 유해를 모신 복자 성당을 밝혀주기도 했다. (복자 천주교회)

<백합꽃 이야기>

칭형(天刑)이라고 불리워 지던 나병 환자들을 돕는 운동이 부산 한국은행의 한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리리희」회원이 전주 한국은행의 교우 행원들을 중심으로 말없이 번져가고 있다. 전주의 회원이 지금은 21명이지만 앞으로는 눈사람 커지듯이 커지기를 바란다. (편집실)

<주보 보내기 운동>

공소에서조차 주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웨친 메아리가 퍼 돌아 왔다. 김원식(해성중 교사), 서정희(전주 동중 교사), 하옥경(한국은행 전주 지점)씨등의 대답이 그것이다. 아지는 크지 않지만. (편집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 ㉠3498)

- 25(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11, 12월신청자-박진량 신부 지도)
 - 26(화) 영어 문화 교실 28(목) 독일어 문화 교실
 - 29(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9, 10월 신청자-문정현 신부 지도)
- ※ 연시 피정 안내(73. 1. 3-6, 회비 2,500원, 50명)

한 선착순 접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성, 독자성, 창조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이웃 형제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 그리고 수용성을 제발하고자 하는 그룹다이나믹스식 피정이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교리교사 J.O.C 투사, 여러 평신도들을 초대합니다.

성 축 탄

지난 번(12월 15일)에 베풀어 주신 교형 여러분의 후의에 앞드려 인사 드립니다.

가톨릭 시보 전복 지사

지사장 김 치복(토마스)

동 남 사 프 T V 및
스토-브

전 주 대 리 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 요 셉(운창)

전주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L. M 연중권목회 (27일 오후 7시 강당)
- 2. J.O.C 간이다방 개설 (24일 오후 6시부터)
- ※ 여러분의 몸도 녹여주시고 J.O.C도 도와 주세요.
- 3. 애령회 12월 월례회 없음
- 4. 도서관 이전 및 「셀」대항 친선 음악의 밤 (30일 학생 미사후)
- 5. 혼배미사(12월 26일 11시, 1월 1일 10시, 11시반)
- 지난 주일 봉헌금 30,152원, 감사합니다.
- ① 예비자 교리 방학. 12월 24일부터 73년 2월 3일까지 쉬고 2월 4일부터 교리공부 시작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원 사도 회장 이태영

- 1. 12월 24일 오후 7시 미사 없음
- 2. 성탄절 행사(25일 오후 8시~10시반) 주일학교 어린이의 무용. 어머니 합창단의 노래. 기타 특기 자랑
- 3. 판공 성사 안내 12월 31일까지는 꼭 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 4. 사도회 월례회(12월31일)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예비자 환영회 및 청년 친목회
때 : 24일 자정 미사후 주회 : 푸른 양지회
- 2. 중 1. 2학년 영어 수학 보충 지도 실시
기간 : 12월 29일~1월 10일 오후 2~4시
접수처 : 학생회장(나춘성) 선착순 접수
- 3. 영세 받는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세식...12월 24일 오후 3시
축하미사...12월 24일 오후 4시
- 4. 교무금 납부 현황
72년도분...85.3% 73년도분...7.7%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 살림 도울시다
□ 지난 주일 봉헌금 5,111원 감사합니다.

성탄절 미사시간 안내

중앙·노송·복자·전동
25일 ○시(자정 미사) 10시(공식 미사) 오후 7시
덕진·서학동
25일 ○시(자정 미사) 10시(공식 미사)

❁ 축 성 탄

숲정이 편집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형제 심의회(12월 30일 10시 성심학교)
- 2. 전주 형제 월례회 (12월 31일 오후 2시반)
- 3. 부녀회 (12월 31일 공식미사후)
- 4. 성당 청소 (매주 월요일 10시)
- 5. 어머니 성가 연습(매주 월요일 저녁 미사후)
□ 지난 주 성미 3말 3되, 누계 70말
□ 지난 주일 봉헌금 10,620원, 감사합니다.
※※ 순교자의 피는 신앙의 씨앗 ※※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1. 고백성사(성탄 자정 미사전) 부득불 성사를 보지 못한 신자들은 성사 보십시오.
- 2. 성탄 행사
경품 놀이(상록 셀)...미사후
슬라이드 감상(학생회)...오후 8시
연극 놀이(학생회)...오후 10시
성탄 자축 파티(성가대)...자정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8,423원
□ 지난 주간 교무금 32,0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성탄절에 아동미사 없음(부모님과 같이 하세요)
- 2. 성탄절 영세식(12월 24일 오후 3시)
※ 유아 영세식도 결합합니다.
- 3. 영세자 환영식(12월 24일 오후 4시)
※ 영세자와 사도회 임원의 참석 바랍니다.
- 4. 병자 방문 판공 성사(12월 25일 오후)
※ 병자 가족이나 구역장은 사무장에게 연락 하십시오.
□ 지난 주일 봉헌금 27,365원, 감사합니다.

가톨릭 지성인의 필독 신학 잡지

계간 전 망(展望)

광주 대건 신학 대학 발행

❁ 축 성 탄

전주 시내 6개본당 사도회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미 주 일	오 전	6시반, 10시	6시반, 10시	10시	10시	10시	6시, 10시, 11시
	오 후	7시 (토요특전5시)	7시 (토요특전5시)	4시, 7시 (토요 특 전 7시)	7시	7시	7시
시 평 간 일	오 전	월.수(6시반) 금(10시)	금(10)	월.수.금(6시반)		월. 목(7시)	월.화.목.금(6시)
	오 후	화.목(6시)	화.수.목(6시반)	화.목(7시)	매일(7시)	화.수.금.토(7시)	수.토.(7시)